

대한간호의 발전과 전망

이 금 전 (본회증경회장 : 재미)

I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진 우리 조국에 서구식 간호사업이 도입된 것은 1905년에 외국선교사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간호학교가 설립되면서 부터였고 1906년에는 처음으로 간호원의 상징인 '캡'을 받는 가관식을 가졌다.

외국선교사업의 발전을 따라 1940년에는 간호교육기관이 전국 8개 병원에 설립되었고 동시에 13개 도립병원계통에도 간호원 양성기관이 17개가 설립되었다.

1940~1945년까지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국내의 모든 기관들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방인 미국의 힘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미 군정이 수립되면서 보전후생 부대에 간호사업국이 설립되었고 여기서 간호학생 입학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였으며 간호원 양성소라는 명칭을 고등간호학교로 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한간호협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1922년까지는 '졸업간호원회'라는 명칭하에 외국선교간호원들만이 집회를 가졌다가 1923년부터 조선간호원들과 외국간호원들을 합하여 「조선간호부회」가 조직되었고 1946년부터는 조선간호원들만이 모여서 조선간호협회를 조직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해방된지 3년만에 미군정에서 벗어나면서 대한간호협회라 명칭하였다.

또한 협회 기관지로서 1925년 「조선간호부회보」가 일부 회원들의 편리상 국문과 영문으로 출판되었고 1948년에는 「대한간호」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제 그 기틀을 잡고 그동안의 억눌리고 서러웠던 한을 한껏 우리자신의 발전에 쏟고자 하던 의욕은 복귀의 6·25사변으로 잠시 늦출수 밖에 없었다.

사변이 끝나고 1953년 7월에 대한간호 주간 1호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불충분한 여건으로 정기 간행물로서의 소임을 다할수가 없었다. 회의 성장과 더불어 격월간의 정기간행물로서 회원을 대변하고 새로운 학습을 소개 전담하는 정보매개지로서 그 소임을 다하여 1979년 4월에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간호가 제100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그 이면에는 근 30년간에 걸친 수많은 회원들의 지혜와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 쌓이고 쌓여 된것임을 믿는 동시에 그 분들의 극진한 희생적업적을 진실으로 축하드린다.

II

(1)

국제간호협회(ICN)에는 1929년부터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일제하의 서러움으로 좌절되었고 1949년 5월에 가입되므로서 비로소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ICN에 회원국으로서만

註 : 이 글은 在美증인 이금전 증경회장이 보내주신 것으로 지난호에 게재 예정이었으나 지역적사정으로 늦어져 금번호에 게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ICN의 전문간호사업위원
으로도 활약하며 WHO의 고문관으로도 활동하
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활약이 점증되고 있다.
바로 우리의 신장인 것이다.

(2)

無에서 有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비바람
헤쳐가며 이룩한 국내 간호의 동향은 30년간에
걸쳐 다양한 업적을 이루었다. 먼저 간호원의
교육수준향상으로 국내·외에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며 생명
의 옹호자로서 참다운 간호상으로 오늘날 더욱
히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일은 더욱 많아져간다. 국가
의 번영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사업의
확충, 지역사회에 보건사업, 학교보건, 산업장
보건 등 업무의 양과 질은 그 어느때 보다 확대
되어 간호원에 주어진 책임 또한 정비해하지 않
을 수 없다 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효율화 하기 위하여는 제 1차
건강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진로를 일차적으
로 다루워 온것은 잘못이었다. 20세기 말엽에
와서야 비로서 예방의학적 견지에서 일차건강관
리(Primary Health Care)에 대하여 관심을 갖
게 되어 병원을 찾기전에 지역사회가 가정단위
로 특별교육을 받은 건강간호사의 제 1차건강간
호를 받도록 되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물론 부족한 인력의 의사
에게도 도움이 되고 간호원은 좀더 길숙한 간호
속에 들어가 위촉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간
호행위를 탈피하여 좀더 의미있고 활기차며 효
과적인 간호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근자에는 전보다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천
하는 경향이 더 많은데 이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배운지식이 오래되면 녹슬 뿐아니라 세
상에는 항상 새로운 학문이 옛 학문을 뒷받침
해주어야 하므로 치료의학분야와 예방의학분야

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발표되는 새로운 지
식을 배워 내것을 만들고 또 실천하여 번천이
많은 이 과학적이며 빠른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대한간호는 바로 나의 벗이요, 또한 회원 여
러분의 분명한 벗임을 외치고 싶다. 비록 경제
적이거나 아니면 여타의 많은 사정속에서 미진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긴 시
간을 우리를 대변하고 살찌게 하는데 노력하고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존속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기관지를 보다 살찌게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자신의 책
임이요 의무이기도 하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지금은 대한간호와 더불어 간협신보의 두기관
지가 발간되고 있어 우리의 권익옹호, 의사전
달, 활동사항, 이해증진, 정보교환, 학술정보전
달등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많은 일들을 수
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고통이 바로 우리자신의 고통이라하여 결
코 지나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흠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익한
손발이 되어주는 두 기관지의 자립을 우리 모두
가 적극 성원하고 밀어서 갖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기틀이 마련된 두 기관지의 앞
날이 튼튼하고도 영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
원을 모든 회원들이 하여 줄 것을 이역 만리 먼
이국에서 간절히 기원한다.

주소 : Mrs. K.L. Whang 11565 Cedar Way
Loma Linda, Ca, 92354